

# 『젊은 그들』의 역사 내러티브 전략과 민족 담론의 양상

김경미\*

|| 차례 ||

- I. 서론
- II. ‘연루’된 과거와 역사적 개연성 추구
- III. 공적 역사의 주변화와 이분법적 인물 배치
- IV. ‘고결함’의 이데올로기와 민족 담론
- V. 비정상적 섹슈얼리티와 ‘배제’의 논리
- VI.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동인의 첫 역사소설인 『젊은 그들』의 서사 전략을 통해 드러나는 당대 식민지 시기 작가의 민족 담론의 양상을 밝힌 글이다. 김동인의 첫 역사소설 『젊은 그들』은 이분법적 인물 배치라는 서사 전략으로 공적 역사를 주변화하고 작가의 주관에 의해 역사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가공하여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물의 대립적 형상화와 선택과 배제의 논리를 통해 식민지 시기의 민족 담론의 양상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드러내는 『젊은 그들』은 김동인의 전반기 예술성을 추구하던 작품 경향과 후반기의 통속적 성향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로서 그의 전시기 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다.

『젊은 그들』은 역사적 인물이자 주인공인 대원군을 서사의 배경으로 처리하고 가공의 인물들을 서사의 핵심에 배치하는 전략으로 공적 역사를 주변화하고 있다. 가공의 인물들은 역사적 인물인 대원군과는 수직적 관계로 형성되고, 민비와의 관계에서는 대립적으

---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로 형성된다. 이 두 부류의 인물들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교차하고 대립하는 이분법적 배치와 서사 전략은 독자들로 하여금 서사의 내용들이 역사적 개연성이 있는 사건임을 실감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이전 작품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김동인의 민족 담론을 표출하게 한다. 서술자의 논평과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한 초점화 방식을 이용해 대원군을 ‘고결함’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 가공의 인물들은 대원군을 추종하여 남성다움과 동지애를 통해 민족주의의 이상을 부각시킨다. 반면에 대원군과 대적점에 있는 민비의 형상화에서는 ‘초점화자’와 ‘풍문’의 서사 전략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남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민족주의 이상에 위배되는 여성은 배제와 추방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인물을 구현하는 서사 전략은 1920~30년대 김동인이 갖고 있었던 여성 담론과도 연결되며, 낭비와 물질주의를 비판하면서 정신주의를 강조하던 당대의 문화담론과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역사소설은 전사(前史)를 소재로 하여 당대의 담론과 현재의 사회를 비춰 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 남성 중심 사회가 도덕적이고 정상적이라 파악하는 김동인의 역사관에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의 이분법적 논리가 숨겨져 있고, 여성 인물의 문란함과 비정상성은 당대 문화론의 ‘정신주의’의 영역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민족 담론은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주제어 : 김동인, 『젊은 그들』, 서사 전략, 민족 담론, 연루, 비정상적 섹슈얼리티, 선택과 배제, 역사적 개연성

## I. 서론

김동인 문학의 출발은 민족과 계몽성을 추구했던 이광수 문학류에 대한 반발에서였다. 그의 문학은 작가의 개성과 주관의 표현이자 미의 추구, 예술성 확보를 위한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즉 그는 계몽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간 문학은 순문학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전근대적

형식으로 간주하였다. 그의 문학은 계몽성도 민족의식도 드러나지 않고, 자아의 개성과 예술성의 추구 등을 모토로 삼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학을 추구하던 김동인이 생계를 위해 ‘훼손’을 선언하고 창작한 것이 바로 역사소설 『젊은 그들』이었다. 김동인은 스스로 『젊은 그들』을 썼던 시절을 ‘타락’으로 나아간 시기였고, 작품에서 가장 노력한 것은 통속적 의미로 ‘흥미성’이며, 이 시절이 이전의 문학에 대해 갖고 있던 신념, 즉 절(節)을 굽힌 시기였다고 회상하고 있다.<sup>1)</sup> 김동인의 첫 장편소설이자 역사소설인 『젊은 그들』은 그에게 개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던 문학에서 흥미와 대중성을 지향하는 문학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이다. 『젊은 그들』은 김동인이 ‘훼손’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라는 평가 속에서 그의 기존의 작품 경향과 ‘훼손’을 의미하는 흥미성, 통속성이 혼재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동인은 이 작품 이후에 꾸준히 대중성을 생각하여 신문연재 방식의 역사소설<sup>2)</sup>을 창작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첫 역사소설이자 대중소설인 『젊은 그들』은 전환기의 김동인의 문학적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특히 김동인이 역사소설을 집필하던 시기인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일제의 문화론의 영향 아래 조선인이 간행한 언론 매체와 잡지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다. 그 중 민간지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출현은 식민지 조선에 다양한 문화 담론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또 한편으로 문화론은 당대 일제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조선인의 민족성 확인과

1) 김동인, 「처녀장편을 쓰던 시절」, 『조광』 12월호, 1939.

2) 김동인은 『젊은 그들』 이후 불특정 시대를 그린 『해는 지평선에』(1932.9~1933.5)와 『운현궁의 봄』(1933.4.26.~1934.2.17)을 창작하고, 아들을 위한 역사물 시리즈인 『아기네』(1932.3.1.~10.31)를 집필한다. 이후 『제성대』(38.5~39.4), 『잔혹』(39.2~10), 『대수양』(41.3~12), 『백마강』(41.7~42.1), 그리고 『서라벌』(1947), 『을지문덕』(1948.10.1.~1949.7.14.)을 창작했다.

정체성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 1920년대는 문화론 정책아래 역사에 대한 관심이 학적 체계로 형성되면서 근대 사학이 성립되었고, 역사서의 출판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1928년에 창간된 잡지 『한빛』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 유적 답사, 사화, 야담 등을 집중적으로 실었다. 뿐만 아니라 취미 실익을 표방한 대중잡지인 『별건곤』에서조차도 역사 서사물을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이러한 역사 서사물의 흥행은 언론 매체의 허용이라는 일제의 문화정책이 작동되면서 식민지 조선인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욕구라는 양자의 역학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 중에서 역사소설은 당대 식민지 조선인들의 민족 정체성과 문화 매체로서의 흥미에 부합되면서 신문 연재란을 독차지하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역사소설’만큼 쉽고 확실하게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장르는 없었다. 식민지 시기였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소설에 담긴 민족정신과 사상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당대 담론적 상황과 당시 『동아일보』 편집장이었던 이광수의 연재소설 청탁이 맞물리면서 김동인은 자신이 추구하던 작품 세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역사소설을 집필하게 된다. 역사소설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소재로 취하여 그것과 관련한 작가의 역사의식이나 민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장르이다. 김동인은 스스로 민족이나 계몽성을 드러내는 작품에 대해 반발한 작가였다. 신문연재 소설이라는 면에서 ‘흥미성’을 중점적으로 드러내어 집필하는 것이지만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김동인이 그토록 거부했던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이 『젊은 그들』이라는 역사 내러티브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젊은 그들』은 ‘자기의 창조한 세계’<sup>3)</sup>를 강조하던 시기의 예술적 성향과 역사소설에서 드러나

는 민족 계몽적 성향이 혼재되어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그의 첫 역사소설인 『젊은 그들』에 나타난 역사 내러티브의 전략을 분석하여, 그가 ‘자기의 창조한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자 했으며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취한 서사에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역사 담론을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국 역사소설에서 드러나는 역사 담론의 양상은 당대 식민지 조선 민족에 대한 인식의 표출로 이어진다. 즉 김동인의 역사소설 『젊은 그들』은 그가 이전의 텍스트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식민지 시기의 민족 담론을 행간을 통해 표출한 최초의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인의 역사소설 『젊은 그들』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주로 역사소설의 유형과 인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윤식<sup>4)</sup>은 역사소설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는 후 김동인의 『젊은 그들』을 ‘중간형’ 역사소설로 분류한다. 일본의 ‘시대물’의 구성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그의 허무의식이 역사소설로 나아갔다고 파악한다. 즉 가짜 신의 모습을 역사에서 찾은 김동인의 개인사를 통해 『젊은 그들』을 분석하고 있어서 당대의 김동인 역사소설이 가지는 의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강영주<sup>5)</sup>는 ‘루카치’의 『역사소설론』을 근거로 ‘역사 로맨스’와 ‘근대적 역사소설’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김동인의 『젊은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 작품이 개성적 인물을 설정한 것은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역사적 진실성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근대적 장편 역사소설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파악한다. 박종홍<sup>6)</sup>은 『젊은 그들』은 상업적 동인에 의해 쓰여진 역사소설로 영웅을 중시하는 작가의 ‘영웅주의’에 의해

3) 김동인, 「자기의 창조한 세계」, 『창조』 7호, 1920.

4)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2000, pp.303-342.

5) 강영주, 「김동인의 역사소설」, 『상명대 논문집』 17권, 1986, pp.113-130.

6) 박종홍, 「일제강점기 역사소설의 세 양상」, 『우리말글』 제56집, 2012, pp.571-601.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파악한다. 송백헌<sup>7)</sup>은 강자 지향의 영웅소설로서 한 개인의 영웅을 통해 역사의식을 드러내고자 한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정사에 집착했던 기존의 역사소설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역사적 진실성의 부족을 폄하하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작가의 개성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로 이재용<sup>8)</sup>은 계몽성으로 대변되는 이광수와 예술성으로 주목받는 김동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역사소설의 특징을 작가적 특성과 함께 규명하고 있다. 논자는 역사소설로의 전환을 심리에 입각하여 규명한 후, 김동인의 첫 역사소설 『젊은 그들』은 대원군을 위해 암약하는 비밀단체의 인물들이 상대방의 비밀이나 진심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흥미성을 부각시키고자 했으나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광수의 역사소설과 비교 대조하여 분석함으로써 김동인 역사소설의 당대적 위상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면서도 기존 논의에서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인 김동인이 이전 문학에서 거부했던 민족 담론을 역사 내러티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그의 비평에서 드러나는 역사소설관을 분석한 후, 그러한 관점이 『젊은 그들』의 서사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략을 통해 드러나는 민족 담론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김동인이 역사소설에서 과거의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이며, 또 역사 소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3장, 4장, 5장에서는 텍스트에서 그가 본격적으로 역사 내러

7) 송백헌, 「김동인 역사소설 <젊은 그들> 연구」, 『인문학연구』 26권 2호, 충남대 인문과학 연구소, 1999, pp.1-16.

8) 이재용, 「이광수와 김동인의 역사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

티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연루’된 과거와 역사적 개연성 추구

김동인은 첫 역사소설 『젊은 그들』에서 구한말의 대원군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서사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후 식민지 후반기에 쓴 역사소설들은 대부분 고종세의 왕조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런데 처음으로 창작한 역사소설에서 김동인은 왜 근대사에 주목한 것일까? 김동인이 배경으로 삼은 구한말은 현재의 작가가 위치한 시점에서 5~60년 전의 시기이다. 이 정도 거리의 과거란 낭만적일 만큼 멀지도 이질적이지도 않고 독자가 과도하게 호기심을 발동시킬 만큼 가깝지도 않다. 이 시기는 바로 이전의 세대가 경험하고 지금도 아직 일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격동을 서술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독자가 자신을 겹쳐놓을 수 있는 인물의 마음이나 성격을 통해 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 사이, 나라와 개인 사이에 강한 연속성의 감각을 낳을 수 있는 시점이다.<sup>9)</sup> 역사소설의 진수는 독자가 과거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시화하도록 이끄는 힘에 있는 만큼, 기억이나 감정을 직접 환기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가깝지만, 강한 적대감이 누그러질 정도로 먼 과거를 다루는 편이 유리하다.

스즈키는 과거와 만나는 일은 어떤 경우든 순수한 지식과 함께 ‘감정’과 ‘상상력’을 동반하는 것이며, 과거에 관한 지식은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이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결정하는 실마리도 된

9) 테사 모리스 스즈키, 『우리안의 과거-미디어, 메모리, 히스토리』, 휴머니스트, 2006, pp.65-74 참조.

다고 밝히고 있다.<sup>10)</sup> 즉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과거와 ‘연루(implication)’<sup>11)</sup>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조나 제도, 개념의 그물은 과거의 상상력과 용기, 관용, 탐욕, 잔학 행위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며, 과거는 과거 그 자체로서의 사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감정과 관계 등-에서 현재의 우리 삶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역사에 대한 접근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실 뿐 아니라 감정과 상상력이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근래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는 감정의 정서가 많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김동인의 『젊은 그들』은 서술자의 시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술자의 감정과 관계가 중요하게 개입된다. 현재의 자신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자신의 현재와 멀지않은 과거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자신의 현재가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측면에서 작가는 쉽게 구한말의 근대사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작가의 현재의 감정과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이 텍스트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역사소설은 독자들에게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 대한 친밀감을 부여하여 그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과거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역사란 과거를 사실 그대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하는 역사가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실만을 추려서 기록하는 것이다. 즉 서술자의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결국 역사 서술은 실제

10) 테사 모리스 스즈키, 위의 책, 2006, pp.42-43.

11) 스즈키는 우리가 과거와 맺는 관계가 통상 역사적 책임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며, 역사적 책임보다는 더욱 폭넓게 관계로 이루어져있다는 측면에서 이 개념을 고안해 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산물들은 나중에 태어난 세대라 하더라도 과거의 사건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 위의 책, 2006, pp.42-46 참조.



의 사건들에서 서로 충돌하는 내용을 자기 방식대로 기억과 망각의 매커니즘을 통해 구성하는 담론인 것이다.<sup>12)</sup> 이러한 논리로 볼 때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역사 서사는 작가의 의도에 맞게 선택하고 배제하기 쉽게 기억을 재구성하고 사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최적 시기인 것이다. 결국 김동인에게 이 시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의 창조한 세계를 접목시키고 과거의 사건에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서사를 꾸러낼 수 있는 공간인 것이었다. 『젊은 그들』에서 대원군과 왕비(민비)의 형상화를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놓은 것 역시 과거에 대한 감정적 연루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역사적 인물인 대원군과 민비 이외의 중요인물은 가상의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김동인의 역사소설에 대한 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인은 「춘원연구」에서 이광수의 역사소설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소설의 형상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역사소설관’을 정립하였다. 김동인은 이광수의 역사소설에서 역사에 대한 고증이 부정확하고, 조선시대의 풍습이나 궁중 언어, 문화적 사실에 대한 오류가 많다고 비판하였다.<sup>13)</sup> 뿐만 아니라 역사를 소재로 선택했지만 소설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적 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알외웁기 황송하오나 보위를 수양대군에게 사양하시오』

이런 무엄한 말은 (아모리 首陽이라는 배경이 있을지라도) 君臣間的 체면

12)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5, pp.12-103 참고 ‘역사란 결국 ‘기억’에 특유한 강제적 반복성을 객관성이라는 이름의 명분으로 제어하면서 그 기억을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해석학적으로 전유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를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한 담론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억’이론이 역사 내러티브를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다.

13) 김동인, 「춘원연구(十)」, 『삼천리 문학』 2집, 1938.

상 못할 것이다. 실제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야기』로서의 진실성이 적으면 소설가는 이를 추려서 소설화할 필요가 있거늘 이『實在치 못할 일』까지도 再檢치를 않은 것은 作者의 放心으로서 그 책임은 피치 못할 것이다.(중략 인용자) 너무도 사실이라는데 관심키 때문에 소설가로서의 상상의 날개를 봉쇄하여 버린 것이다.<sup>14)</sup>

위의 인용문은 역사적 사실이더라도 서사 전개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니라면 소설로서의 개연성을 위해 작가가 직접 자연스럽게 가공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광수는 역사소설에서 ‘텍스트 외적 원천’에만 의지해 소설적 가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남효온의 『육신전』을 현대어로 고스란히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즉 사회의 기록자라는 서기 역에서 ‘사실(史實)의 재생’이라는 소설가의 역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이 바로 이광수 역사소설의 치명상이라고 판단한다. 김동인의 이러한 관점은 역사소설이라는 것은 ‘역사’를 소재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잘 고증하되, 서사의 진행은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개연성을 확보하여 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역사적 개연성’<sup>15)</sup>을 추구하면서 역사 내러티브가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김동인의 유명한 ‘인형조종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동인의 인형조종술은 예술성을 부각한 작품뿐만 아니라 흥미성이 강조된 역사소설인 『젊은 그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김동인이

14) 김동인, 『춘원연구 (十二)』, 『삼천리』 11권 1호, 1939, pp.17-218.

15) 공임순은 역사서사에서 공적 역사의 역사성을 존중하는 한편으로 소설적 개연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역사적 개연성은 한편으로 공적 역사를 탈중심화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자 독자의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을 안정하게 포착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공임순,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장르론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추구하던 예술성 문학에서 궤절로 여긴 역사소설로 전환기에 혼재된 형상화 방식으로 기존의 그의 창작적 기법인 ‘자기의 창조한 세계’를 그린 예술성을 드러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술성이 부각된 작품에서 강조했던 작가의 ‘판단’과 ‘주관’의 중요성을 역사소설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즉 김동인의 작품세계에서 늘 강조하던 예술성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전략인 작가의 ‘주관’과 ‘판단’을 『젊은 그들』에서도 여지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인은 “사실은 사실-판단은 판단-우리는 판단에까지 과거의 국가에서 구속될 필요는 없다.”<sup>16)</sup>라고 말하면서 ‘판단’이라는 것은 ‘주관’의 산물로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 파악한다. 역사소설에서도 이 판단과 주관이 잘 드러나야 소설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강조한다. 『젊은 그들』에서는 가상의 인물을 형상화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기법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김동인의 이러한 역사소설관은 그의 첫 역사소설인 『젊은 그들』에서 이분법적 인물 배치 전략으로 공적 역사를 주변화 하는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서사에서 민족 담론과도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김동인의 『젊은 그들』은 가까운 과거인 구한말을 배경으로 작가의 창조한 세계인 가상의 인물을 통해 중심인물들의 활약을 그리면서 공적 역사를 주변화하고, 이분법적 인물 배치 전략을 구사하여 주관과 판단에 의해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역사의 선택과 배제의 논리를 드러내면서 김동인의 민족 담론을 표출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16) 김동인, 『역사의 사실과 판단과 사료에 대한 작자의 입장은 논함』, 『김동인 전집』 16권, 조선일보사, 1988, p.227.

### Ⅲ. 공적 역사의 주변화와 이분법적 인물 배치

김동인의 『젊은 그들』은 『동아일보』에 1930년부터 1931년 11월 10일까지 실린 신문연재 역사소설이다. 『젊은 그들』은 구한말 고종조에 민비<sup>17)</sup>가 득세하던 시절,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와 재기를 계획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대원군의 실권을 회복하기 위한 단체인 활민숙 청년들의 사랑과 구국활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활민숙의 청년인 안재영, 이인화, 명인호이며, 이들은 작가에 의해 가공적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다. 이들이 행하는 모든 사건과 영웅적 활동들이 서사의 배경이 되는 대원군을 향해 모인다. 사건의 배경이면서도 하나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역사적 인물이 대원군(태공)이고, 서사의 중심 사건을 일으키고 극대화시키는 것은 가공의 인물들이다. 이러한 서사의 두 축이 서로 교차하고 얽히면서 형성된 것이 역사소설 『젊은 그들』이다. 김동인은 자신의 작품인 『젊은 그들』을 회고하는 글에서 통속적 역사소설이었지만 작품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공의 인물의 형상화에 노력했음을 밝히고 있다.

배경을 역사에 두고 사상(史上)의 인물을 주요한 줄거리에 집어넣었었다. 그러나 역사소설은 아니요, 거기 나오는 인물은 대원군 그 밖 1,2인을 제외하고 죄 가공의 인물이었다. 이 가공의 인물에 전부 개별적으로 성격을 주어 활동케 하고 가공의 인물과 사상의 인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대담을 시키고 교제를 시키는데 모순이 없고 충돌이 없게 하기에 껍이나 애를 썼다.(중략) 인

17) 『젊은 그들』에서 작가는 대원군과 대립적 위치에 세운 인물을 ‘왕비’로 서술하고 있다. 작가가 이 왕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그려낸다. 본고에서는 작가의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서사의 분위기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호칭으로 ‘명성황후’ 대신 ‘민비’로 서술하겠다.

용자) 만연히 역사의 ‘이야기 줄거리’에만 붙들리어 써 내려가면 그것은 꿈결에 듣는 옛말 같아서 진실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인물로서의 산(生)사람으로서의 그림자를 확실히 부여넣으려면 그 인물의 성격과 특징이 완연히 나타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춘원의 『단종애사』며 『마의태자』등이 이점을 관심치 않았기 때문에 진실성을 잃어버렸고 인형이나 허수아비들이 등장하여 노는 것같이 된 것이다.<sup>18)</sup>

앞 장에서 밝혔듯이 김동인은 ‘텍스트 외적 원천’에 의지해 ‘사실-효과’를 추구한 기록적 역사소설류를 비판하였다. 역사적 사실이 고증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어도 사건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 그것을 ‘가공’해서라도 사건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물로서의 산사람으로서의 그림자’를 확실히 부여넣은, 김동인이 강조하는 역사소설의 형상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작가가 선택한 방법이 소설적 장치를 통한 ‘사실-효과’의 극대화 방법인 역사적 개연성의 추구이다. 이를 위해 그는 역사적 시기인 구한말 ‘대원군’의 시대를 배경으로 처리하여 대원군을 사건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중심에는 대원군을 추종하는 허구의 인물들을 위치시킨다. 왕조실록이나 역사적 문헌, 즉 고증적 역사에 기대어 사실-효과를 살리는 방식의 기록적 역사소설과는 다르게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가공의 인물과 가공의 사건을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공적 역사’를 중심에서 비껴나게 하는 것이다. 즉 작가는 역사적으로 고증된 인물과 그 시대를 작품의 배경적 요소로 활용한다. 그 대신 공적 역사와 상관없는 가공의 인물들을 역사적 인물들과 연관시켜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8) 김동인, 『처녀장편을 쓰던 시절-『젊은 그들』의 회고』, 『김동인 전집』 16권, 조선일보사, 1988, p.427.

이 작품은 총 26장의 소재목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그 중 8장이 역사적 인물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18장이 가공의 인물이 중심이 되어 사건을 전개시키는 부분이다. 두 인물들이 교차되어 사건이 형성되는 부분도 서사에서 30%정도 차지하고 하다. 그러나 김동인이 이 작품에서 중점적으로 공을 들이고 형상화한 부분은 가공의 인물의 활약상이다. 이 부분 이야말로 작가가 역사소설에서 중요한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인물인 대원군을 중심으로 둔 여덟 개의 장은 서사의 배경을 제시하는 1장, 2장, 4장, 7장과, 작품의 결말에 해당하는 18장, 19장, 24장, 25장에 분포되어 있다. 사실-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을 서사의 발단과 결말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이 작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역사적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적 사건인 양 독자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준다. 나머지 가공의 인물들이 중심이 된 사건은 서사과정에서 전개와 위기 그리고 절정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서사의 극적 긴장감을 더하여 독자로 하여금 극에 몰입하는 효과를 부여한다.

이러한 전략적 배치 구조는 '역사적 인물' 부분에서는 사실성을 부각시키고, '가공적 인물' 부분에서는 극의 흥미성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김동인은 역사소설에서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한 풍습이나 제도, 풍물 등에 대한 고증이 불철저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연유로 『젊은 그들』에서 그는 역사적 배경을 서술한 8개의 장에서 그 시대의 정치적 판도의 동향, 국민들의 생활상, 당대의 유명했던 인물들의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 서사에서의 사건들이 독자의 입장에서 시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서술하고자 하였다. 즉 역사적 시대를 형상화할 때는 철저하게 고증을 해야 하며, 그 대신 사건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위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역사적 개연성을 갖추어 가공할 것을 강

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젊은 그들』이 보여주는 서사적 전략이자 작가가 강조하는 역사소설관의 핵심인 것이다.

한편으로 ‘가공적 인물’들을 활용하여 서사 전개의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하고자 한 부분은 작품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한다. 가공적 인물로는 남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안재영’, 그의 정혼자이자 남장 여인으로 활약하는 ‘인화’, 민비 측의 인물이었다가 아버지의 행방을 알게 되면서 대원군의 사람이 된 ‘인호’, 그리고 재영을 사모하는 기생 ‘연연이’가 대표적이다. 안재영과 인화는 활민당 당수의 보호를 받고 자랐으며, 민비에게 억울하게 당한 부친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대원군을 보좌하는 비밀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다. 작가는 재영을 대원군과 뜻을 같이했던 훌륭한 인물의 자제로 설정하여, 그의 인물됨과 성품이 온화하고 행동은 대범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뛰어난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인화와 인호도 재영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청년들로 제시하고 있다.

‘가공적 인물’들의 사건의 시작은 인호가 대원군을 암살하기 위해 잠입했다가 재영에게 잡혔을 때, 인호를 정혼자로 착각한 인화가 그를 풀어주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재영-인화-인호’ 세 사람 사이의 사랑과 오해, 그리고 ‘인화-재영-연연이’와의 애정 삼각관계가 가공적 인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구조이다. 그러나 재영과 인호가 피로써 의형제를 맺고 난 후에 재영이 민씨의 일족인 민겸호의 집에 잠입해서 붙잡히게 된다. 민겸호의 집에서 총살당하는 재영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삼각관계로 형성된 애정갈등은 모두 해결되고, 그들의 공통된 목표인 대원군을 권좌에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내용이 전개된다. ‘가공적 인물’들에 의해 형성된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멜로 드라마적 구조를 취한다. 남녀인물들의 삼각관계, 강렬한 감정, 극적인 사건들과 운명적 만남과 엇갈림 등은 멜로드라마가 갖는 기본적 속성들이다. ‘가공적 인물’들의 사건을 통해 작가는 우선 역사소

설이 독자에게 어필될 수 있는 ‘흥미성’을 획득하고 한편으로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중형무진 자기의 창조한 세계를 작가 스스로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 가공적 인물들이 그들만의 관계에서만 사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큰 사건이 촉발될 때는 항상 작품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대원군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주인공인 재영은 서술자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대원군과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어서 영웅적인 그의 행동과 그가 일으키는 사건들은 독자에게 신뢰를 받게 된다. 가공적 인물들을 역사적 개연성 있는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실제로 역사적 인물인 대원군이 사건 속에서 더욱더 살아있는 인물로 그려지게 된다. 한편으로 가상의 인물들이 각각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과 동일한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로 그려짐으로서 가공의 인물들도 가짜가 아닌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독자들은 역사적 인물인 대원군의 영웅적 면모를 사실적으로 실감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작가가 의도한 역사적 사실성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태공을 한낱 완고한 늙은이로 알고 있을 동안 태공은 그런 세상을 웃음으로 내려다보며 속으로는 파견한 무인의 손을 거쳐서 들어오는 놀랄만한 외국의 문명을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어른-자기와 지척에 앉아서 세상만사를 잊은 듯이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이 어른- 비록 자기는 친구를 무시한다는 누명을 쓸지언정 사랑하는 나라와 군대를 굳세게 하기 위하여 한 친구를 외국에 파견한 뒤에 십년에 가까운 날짜를 그 마음 발표하여 본 적이 없이 그 때문에 생겨난 온갖 비난을 달갑게 받은 이 어른-붉은 주름살과 반백의 수염 아래서 때때로 격동될 때는 오른편 눈썹과 오른편 뺨을 떠는 이 어른-난초와 가야금으로써 노후의 한 세월을 보내는 듯 싶으면서도 마음 속에는 별반 배포를 다 꾸미고 있는 이 어른-. 이 어른의 고요한 숨소리와 온화한 얼굴은 재영이의 마음을 오히려 산란케 하였다고 형용하고 싶을



만치 움직였다.<sup>19)</sup>

재영이는 눈 깜박하지 않고 태공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아주 평온하고 무표정한 얼굴 뒤에 감춰져 있는 머리로써 세상 사람들이 능히 예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는 엉뚱한 일이며 꿈도 안 꾸는 커다란 일을 꾸며 내는 무서운 지혜와 지력과 패기와 지배력에 뜻하지 않고 몸을 떨었다.<sup>20)</sup>

위의 인용문은 태공이 재영과 인호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그들의 부친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대원군과의 의리를 굳게 맺게 되는 모습을 서술한 부분이다. 가공의 인물과 역사적 인물이 같은 장소에서 대화하고 그들과 동일한 사건 속에서 얽힘으로 역사적 인물인 대원군이 산사람으로서의 생동감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또 온화한 성격이지만 그 속에 비범함을 갖춘 인물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서 인물 성격의 일관성과 사건의 역사적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독자에게 신뢰받고 있는 주인공의 시선으로 대원군이 그려짐으로써 역사 서사에서의 사실-효과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즉 『젊은 그들』의 서사 구조는 ‘가공적 인물’들의 갈등구조와 ‘역사적 인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가공의 인물들은 대원군과는 수직적 관계로 형성되고, 민비와 그 일족들과의 관계에서는 대립적 관계가 형성된다. 즉 『젊은 그들』은 우선 ‘역사적 인물’과 ‘가공적 인물’의 수직적 관계로서의 서사 구조와 ‘역사적 인물’들 간의 수평적이지만 대립적인 이분법적 서사 구조가 교차되면서 형성된 작품이다. 『젊은 그들』은 가공의 인물들을 서사의 핵심에 배치하는 전략으로 공적 역사를 주변화시켜 인물의 형상화에 일관성을 부여하였고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하는 데도 일조하였다. 인물의 이중

19) 김동인, 『젊은 그들 上』, 『김동인 전집』 5권, 조선일보사, 1987, p.155.

20) 김동인, 위의 책, 1987, p.158.

적 배치-가공적 인물 대 역사적 인물-와 역사적 인물들의 이분법적 배치-대원군 대 민비-의 서사 전략은 작가의 주관과 판단에 의해 역사소설의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하는 데에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역사적 인물의 이분법적 배치로 인해 발생한 김동인의 역사관과 내러티브 과정에서 표출된 민족 담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IV. ‘고결함’의 이데올로기와 민족 담론

『젊은 그들』은 상업적 동인에 의해 흥미성과 대중성을 갖춘 역사소설이다. 흥미성을 갖춘 대중소설들은 기본적으로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에 의거하여 인물들을 배치한다. 이는 멜로 드라마적 속성을 가진 모든 유형의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동인의 『젊은 그들』도 인물의 설정에 있어서 역사적 인물이자 실질적인 주인공인 대원군(태공)과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가공의 청년들을 선인으로 설정하고, 민비와 민겸호 등의 민씨 일족을 반동인물인 악인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이 작품에서 극단적인 인물 형상화의 배치는 작가의 민족 담론을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한다.

먼저 작가는 실질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대원군(태공)의 캐릭터를 고증적 사실에 의거하기 보다는 작가의 판단에 의해 가공적 요소를 치밀하게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먼저 『젊은 그들』의 시대적 배경 설정에서부터 작가의 판단이 개입된다. 역사적 고증에 의거해 볼 때 대원군이 권좌에 있었던 시기는 쇠국정책의 극단성과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 경제 파탄이 심각했었다. 그러나 작가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 임오군란이 일어난 시절까지의 모습만을 그려 독자 대중의 집단적 기억

을 쉽게 조절할 수 있었다. 즉 작품 전체의 배경을 민비 집정기로 선택함으로써 대원군의 실정(失政)을 대중의 기억에서 배제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sup>21)</sup> 이러한 시대적 배경의 선택은 대원군을 작가의 의도대로 형상화하는데 효과적이고, 위인으로서 역사적 사실성을 획득한 인물로 가공하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서술자는 대원군을 ‘국민을 어버이처럼 사랑하는 인물’이자 정치적 식견과 외교적 수완도 뛰어난 인물로 그리고 있다. 즉 독자에게 보여지는 대원군은 도덕적으로도 고결하고, 정치적으로도 유능하며, 태생적으로도 왕자의 위엄을 가진 인물인 것이다.

태공은 일찍이 외국-더욱 양국의 크고 강함을 알았다. 그러나 나라로서의 위신과 정의를 보존키 위하여는 가까운 장래에 그 양국과 교제치 않을 수 없음을 알았다. 이러한 곤란한 처지에 처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정치가가 베풀 정치는 어떤 것일까. 그는 먼저 쇠국을 선언하고 안으로는 국력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먼저 몇 백 년래의 폐해이던 당벌과 서원을 없이 하여버리고 온갖 불편한 풍속을 깨뜨려 버리고 국교를 충실케 하고 군대를 양성하였다.<sup>22)</sup>

정부의 목적은 토색이 아니요 국민을 다스리고 지도하며 해로운 시설은 폐지하고 이로운 기관은 만들어내는데 있다는 것을 실지로 보여준 것은 태공이였었다. 외국의 야심을 통찰하고 밖으로는 국력으로 외국을 막으며 안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외국과 교제를 하여도 속보이지 않을 만한 실력을 길러 보려고 노력한 이도 태공이였다.<sup>23)</sup>

21) 기본적으로 역사는 역사가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실만을 추려서 기록하는 것이다. 역사 서술도 이러한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다. 즉 역사 서사도 작가의 의도에 맞게 선택되고 배제된 기억의 재구성인 것이다.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5 참고.

22) 김동인, 『젊은 그들 上』, 앞의 책, 1987, p.29.

태공의 잠든 얼굴은 온화하다기보다 오히려 엄숙하였다. 깨어 있을 때는 오히려 얼굴 전면을 덮고 있던 피로와 불만이 지금은 없어지고 지금 그의 얼굴에 감싸고 나타나고 덮어어 있는 것은 무서운 패기와 그 패기를 도울 만한 의지였었다. 귀인답게 깊고 굵게 새겨져 있는 주름살이며 그 주름살 아래서 때때로 뜨는 눈과 입은 과거에 그가 가졌던 권력을 능히 행사한 의지를 증명하는 듯하였다. 거기는 왕자로서의 위엄이 있었다. 동시에 왕자만이 능히 가질 수 있는 커다란 애함이 있었다. 거기서 생겨나는 궁지까지 있었다.<sup>23)</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작가는 역사적 ‘사실’로 평가되어지는 대원군의 실정(失政)부분을 역사적 개연성을 위해 독특한 논리로 재해석하고 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서 그의 쇄국정책은 실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자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국력을 쌓은 뒤를 기약한 미래지향적 외교술책이었다고 논평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한 것은 외국의 야심을 알았기에 먼저 쇄국을 하였고, 비밀리에 서양 덕국에 밀사를 보내 선진 문물을 배워오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 대원군이 실시한 제도의 폐지와 설치하는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권위있는 서술자의 논평 방식을 활용해서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고증적 사실’이 서사의 흐름에 어긋날 때에는 작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창의적으로 가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동인의 역사소설관이 적극적으로 발휘된 것이다. 작가는 대원군의 실책조차도 그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서사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실’을 역사적 개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공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세 번째 인용문은 대원군의 성격 형상화 부분으로 잠들어 있는 얼굴에서도 무서운 패기와 위엄을 느낄 수 있는 외모로 그리면서,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선비와는 격이 다른 바로 왕자로서의 위엄을 갖춘 얼굴이라

23) 김동인, 위의 책, 1987, pp.38-39.

24) 김동인, 위의 책, 1987, pp.45-46.

고 서술하고 있다. 보수적이고 외골수적인 정치적 식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대원군이 이 작품에서 작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가공되면서 ‘왕자의 위엄’을 갖춘 고결한 인물로 재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대중 독자에게 대원군은 역사적으로도 고결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인식되게 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김동인은 『젊은 그들』에서 주로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대원군의 인물을 형상화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의 시선을 통한 ‘초점화’<sup>25)</sup>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서술자의 논평이 ‘누가 말하는가’라는 관점에 의해 독자에게 신뢰를 주는 기법이라면, 초점화는 ‘누가 보는가’의 관점에서 독자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 초점화자의 도움으로 독자들이 서술자가 제시한 인물에 대해 더욱 신빙성을 갖게 된다. 즉 초점화자의 생각이 바로 독자의 생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동인은 역사적으로 충신으로 기억되는 민영환의 시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대원군의 ‘고결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가 차차 장성하면서 자기의 정치안과 자기의 판단력과 자기의 비판안이 생기기 비롯하면서부터 태공의 다른 일면을 어느덧 발견하였다. 더구나 자기의 일가의 정치가 차차 민간의 원망의 꽃대가 되면서부터는 그 생각이 더 명료하여졌다. 그는 태공의 힘을 보았다. 폐기를 보았다. 열성을 보았다. 민정을 통촉하는 눈을 보았다. 놀랄만한 지배력을 보았다. 커다란 의와 덕을 보았다. 자기가 일찍이 믿고 있던 바와 같이 일개의 무식한 노인의 완고 뿐으로는 도저히 행하지 못할 과단성을 보았다. 자기에게 일정한 정견이 없는 뒤에는 도저히 행하지 못할 정치가로서의 굳셈을 보았다. ‘무식한 이’가 능히 가질 수

25) 초점화와 관련된 서사 방식의 논의는 제라르 즈네프,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참고.

없는 정치적 선견안을 보았다.(중략-인용자)

이런 모든 것보다도 태공을 의뢰하고 믿을 만한 더한 미점이 있었다. 그것은 태공의 정치에는 사욕이라 하는 것이 없는 것이었다. 왕가의 위엄을 보 지키 위하여 경복궁을 중수한 것-이것이 태공의 행한 일 가운데 유일의 사복 채움이었다. 그 밖에는 그는 자기의 형제며 근친을 높은 지위에 두기조차 꺼리었다.<sup>26)</sup>

위의 인용문은 민영환이 초점화자이고 그 대상 인물이 대원군(태공)이다. 민영환의 시선에 의해 대원군의 도덕성과 정치적 식견을 평가하게 함으로 대중독자들에게 대원군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확고하게 각인시킬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술의 객관성도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충신으로 기억되고 있는 민영환이 대원군의 가르침으로 인해 개과천선한 인물로 서술됨으로서 충신인 민영환보다도 대원군이 훨씬 더 위대하고 고결한 인물임을 독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대원군의 인물 형상화에서 ‘고결함’을 부각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이상과 관련되는 것이다. ‘고결함’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만인의 도덕으로 여겨지는 것이며, 부르주아 이상과 민족주의가 결합된 가치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이데올로기인 것이다.<sup>27)</sup>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당대 조선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었던 문화담론<sup>28)</sup>과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일제는 표면적으로 물질문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정신과 도덕을 강조하여 문화를 개조하고자 하였다. 정신의 강조는 유물론을 물질주의로 환원하고, 물질의 반대항에 정신을 두면서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정신은 개인의 진정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정신이 아니라 지배자의 요구

26) 김동인, 『젊은 그들 下』, 『김동인 전집』 6권, 조선일보사, 1987, pp.108-109.

27) 조지 모스,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 2004, pp.9-42, p.315 참고.

28)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 사상사 연구』, 해안, 2007, pp.168-169.

에 복종하는 도덕의 논리와 연결되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김동인은 문학을 계몽의 선전 도구나 민족사상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거부한 작가였다. 김동인이 이전의 문학에서 거부했던 계몽주의적 면모와 보수적인 민족 담론이 역사소설에서 작가가 기획한 서사전략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당대 식민지 문화담론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원군의 인물 형상화뿐만 아니라 서사에서 흥미성을 추구하기 위해 일본의 ‘시대물’을 모방한 부분인 활민숙의 청년들의 의리와 인정의 모습에서 그의 민족 담론은 더욱 부각된다. 활민숙의 청년인 재영과 인호는 우여곡절 끝에 피를 나눈 의형제가 되어 태공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의리를 지킨다. 태공이 재집권에 실패하고 청으로 쫓기어 갔을 때 태공의 절친인 활민당의 당수와 청년 재영과 인호는 자결한다. 이것은 일본의 시대물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성다움과 동지애, 즉 남자들끼리의 의리와 인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태공과 활민 사이의 동지애, 재영과 인호 사이의 의리와 우정, 피로써 생과 사를 함께하는 활민숙의 청년들의 모습은 인화와 재영의 이성애적 감정보다 훨씬 강렬하고도 위대한 민족주의<sup>29)</sup>의 중요한 원리인 것이다.

특히 서사의 결말에서 태공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자결하는 장면은 작품의 극적 전개를 위한 장치이기보다는 대원군에 대한 집단적 동지애를 표출하는 장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29) 민족주의는 근대적 시민사상이 배태된 이후의 사상으로 사회적 역사적 산물로서 어떤 정치적 실체에 상응하는 하나의 정신 상태이다.(한스 콘,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 비평사, 1981, pp.29-30.)봉건 사회의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고 주권 사상을 축으로 민중들을 민족의 틀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근대 민족주의가 출현할 당시 내포하고 있었던 사회적 내용이자 역사적 함의인 것이다.

하나의 국가로 표상되는 ‘대원군’의 몰락은 ‘조선 민족’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대원군을 위해 피로써 동지애와 남성다움을 발휘하는 것은 민족주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인 것이다. 민족주의는 남성 사회에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고결함의 이상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했다.<sup>30)</sup>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민족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구분하여 정상적인 것을 장려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 인물들의 남성다움과 동지애는 고결함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민족주의의 고취를 위해 부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젊은 그들』에서 김동인의 민족 담론은 서사 구조와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다. 역사적 개연성을 위해 선택한 인물의 형상화 방식이 민족 담론의 핵심 원리인 ‘고결함’의 이데올로기와 ‘남성다움’, ‘동지애’의 양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 V. 비정상적 섹슈얼리티와 ‘배제’의 논리

『젊은 그들』에서 주인공인 대원군의 대척점에 있는 반동인물은 민비와 그의 일족들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민비가 전면에 드러나는 장면은 딱 한 순간밖에 없다. 중심인물에 대적하는 인물을 주인공이 직접 비판하는 방식은 독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작가는 민비의 형상화에 대한 신빙성과 역사적 개연성을 위해 ‘제3의 인물’의 시선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30) 남성다움은 정상과 비정상의 명확한 구분을 위협하는 근대성의 위기에 대하여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요청된 것이다. 즉 남성다움은 민족 이데올로기의 기본원리이자 민족적 생명력을 상징한다. 조지 모스, 앞의 책, 2004, pp.43-79 참조.



있는 ‘풍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젊은 그들』은 전체 26장에서 민비가 잠깐이라도 언급되는 부분은 5장에 불과하다. 그 5장에서 작품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2장과 4장에서 짧게 언급되고, 나머지는 결말부분인 19장, 24장, 25장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발단에서 민비의 형상화와 관련된 부분을 국민들 사이에 유행하는 ‘풍문’으로 제시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황해도의 어떤 선비가 발명하였다는 이 경구는 삼시간에 조선에 퍼졌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말을 외우고 의미있는 듯이 한숨을 쉬고 하였다. 왕비에게 대한 온갖 유언과 비어가 떠돌았다. 기괴망칙한 말까지 많았다. 일인이 기괴한 요강을 비에게 진상하였는데 왕비는 그 요강을 진일 타고 앉았다는 이야기를 그럴 듯이 서로 수군들 거렸다. 왕비에게 가까이하는 궁녀들은 모두 사실은 여인이 아니고 여복한 이쁜 사내란 말을 서로들 속삭였다. 왕비의 이부 자리는 개켜져 본적이 없다고 서로들 입을 비죽거렸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괴악한 말까지 많이 돌았다. 그렇듯이 국민은 왕비를 밉게 본 것이었다.<sup>31)</sup>

위의 인용문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풍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소설의 발단인 4장에서 제시되고 있다. 소문의 내용은 ‘여성’인 민비가 어처구니없게도 ‘정치’를 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과 방탕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경구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질서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발화이다. 조선 시대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건국된 나라임을 감안한다면 그 당시의 민비에 대한 풍문은 고층적 측면에서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소

31) 김동인, 『젊은 그들 上』, 앞의 책, 1987, p.82.

설이 전사(前史)를 통해 현재의 담론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작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서술이라 할 수 있다.

또 외국에게 문호를 쉽게 개방하듯이 잠자리에서도 많은 남성들을 쉽게 끌어들이는 것은 당대의 여성 담론의 측면<sup>32)</sup>에서도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소설의 발단에서부터 민비에 대한 형상화를 ‘풍문’의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작가가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민비에 대한 반발심을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작가의 이러한 서사 배치-소설의 발단에서부터 화제성을 지닌 반동인물의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제시하는 것-은 강력한 의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젊은 그들』이 신문 연재소설이고 대중성과 상업성을 위해 자극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민비의 형상화 방식과 서사의 배치 구도는 ‘고결함’으로 상징되는 대원군과는 극단적인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여성, 그리고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발휘하는 여성은 이 사회에서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작가는 민비의 형상화를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강력하게 제3자의 시선-신뢰할 수 있는 인물의 초점화 방식으로 대중 독자에게 민비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확고하게 각인시킨다.

32) 1920년대 후반의 여성 담론은 1920년대 초반의 여성 담론에 비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 이 당시 언론 잡지 매체에서 여성의 사치와 방탕함, 문란한 성생활을 일삼는 내용의 독물들을 대거 실어서 신여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 (『대대풍자 사회성공 비술-신여성 되는 비결』, 『별건곤』 25호, 1930.1.; 『여학생 유인대마굴탐사기』, 『별건곤』 5호, 1927.3 등등)

33) 대원군의 ‘고결함’의 이데올로기는 그 대척점에 민비의 ‘비정상적’ 모습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의미를 확보하기 힘들다. 즉 민비의 형상화로 인해 대원군의 ‘고결함’은 작품에서 강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순전히 사복채움이었다. 국고가 텅 빈 데 반하여 자기네 일당의 창고는 놀랄만한 수효의 금으로 터질 듯하였다. 국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로에 배회하는 데 반하여 자기네는 쓰레기통까지 주욱 부스럭기로 찼다. 나라에는 나라를 지킬 군인이 없는데 반하여 자기네의 집은 보호하는 하인의 무리로 둘러싸여 있었다.<sup>34)</sup>

위의 인용문은 충신으로 기억되는 민영환의 시선을 통해 당대의 민비와 그의 일족들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다. 비윤리적이고 자신의 잇속만을 채우는 민비와 그의 일당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인물인 것이다. 민비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타락한 성생활을 즐기는 ‘마녀’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식견도 없는 ‘비도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특히 친족인 민영환의 시선으로 그려진 민비의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 형상화는 대중 독자들로 하여금 민비는 조선 민족을 위해서 ‘배제’되어야 할 인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원군의 대척점에 위치한 반동인물이라는 이유에서라도 부정적 형상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김동인의 민비에 대한 형상화는 매우 극단적이며, 특히 여성의 타락한 ‘비정상’적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작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르주아적 세계관과 남성위주의 민족주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남성의 정념을 보다 고차원적인 목적으로 향하게 하고, 육욕을 초월한 아름다움의 전형을 창출함으로써 성의 통제를 강화했다. 즉 민족주의 이상에 맞는 여성은 ‘순결하고 겸손한 여성’이며, 남성의 전형에 따라 여성은 그 이상을 따라야 하는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 여성이 남성이 지배하는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사회

34) 김동인, 『젊은 그들 下』, 앞의 면, 1987, pp.109-110.

에서 지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동인은 ‘고결함’의 상징으로 제시된 대원군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구현시키고, 그 대척점에 있는 민비를 사회에서 통제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여성으로 규정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작품을 통해 자신의 부르주아적 민족 담론을 표출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동인은 이 작품에서 민비 이외에 여성인물을 두 명 더 등장시키고 있다. 활민속에서 남장을 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술을 연마한 재영이의 정혼자인 ‘인화’와 남자 주인공 재영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여 섬기는 기생 ‘연연이’이다. 이 여성들은 민비의 형상화와는 달리 다소 순화된 시각으로 그려지고 있다. 혁명적이고 남성 지배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여성들은 ‘배제’의 대상이어서, 남장을 하고 무술을 연마한 여성인 인화는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어야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김동인은 인화를 대원군의 ‘고결함’을 부각시키는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인화를 형상화할 때 두 가지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제시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화의 모습과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여성 인화를 번갈아가며 형상화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인화와 달리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인화는 남성 사회를 절대로 위협할 수 없는 순종적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일을 당하여 앞뒤를 살필만한 냉정한 이지를 아직 가지지 못한 이 정열의 처녀는 괴인이 달아나면 아직껏 세상에 비밀히 하던 활민속의 정체가 드러나고 따라서 경애하는 선생과 이십명의 동지의 운명에 파란이 생기리라는 점은 머리에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자기의 약혼잔지도 모르는 이 젊은 이를 도로 살려 보내려는 굳은 결심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sup>35)</sup>

여자의 마음에 박힌 사랑의 뿌리는 가장 큰 것이었다. 이제 만약 인호로서

35) 김동인, 『젊은 그들 上』, 앞의 책, 1987, p.66.

아직 살아 있어서 인화에게 향하여 인화도 민씨 측으로 달려오라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인화는 순시를 주저치 않고 인화의 명하는 대로 할 것이었다. 지금 잃어버린 입 때문에 인화의 마음은 칼로 베는 듯이 아팠다. 선생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화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듯하였다.<sup>36)</sup>

‘그이는 부모가 정하여 주신 남편.’

이러한 생각 아래서 출발된 그는 인화의 죽음을 당연히 슬픔으로써 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베 허리띠를 만들어 띠고 베적삼을 지어 입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그의 명복을 하느님께 축수하였지만 그 애통 가운데는 충분한 여유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애통 가운데는 열여덟 처녀가 낳은 바의 공상적 비애가 많이 섞여 있었다.<sup>37)</sup>

첫 번째 인용문은 인화가 민씨 측의 잠입자를 자신의 정혼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살려서 보내 주려는 장면이다. 잠입자를 살려 보내는 순간, 대원군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인 활민당의 정체가 드러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자신의 심정적 차원에 몰두해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남성들의 형상화와는 달리 여성인 인화의 비이성적인 측면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정혼자로 알고 있는 인화가 살아서 자신을 민씨 측으로 오라고 명한다면 곧바로 달려갈 것을 결심하는 장면이다. 지아비의 명령이라면 정의도 의리도 지킬 줄 모르는 맹목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작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인화를 남장시키고 무술도 연마하게 하지만 결국 인화는 전형적으로 가부장제 질서에 복종하는 여성인 것이다. 세 번째 인용문은 인화가 죽었다고 착각한 인화가 그를 위해 남몰래 베적삼을 입고 남편의 명복을 비는 장면이다. 김동인이 형상화한 인화는 남성이 지

36) 김동인, 『젊은 그들 上』, 위의 책, 1987, p.185.

37) 김동인, 『젊은 그들 上』, 위의 책, 1987, p.193.

배하는 사회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순종하는 여성일 뿐인 것이다. 남성을 지배하거나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는 단순히 남장한 여성일 뿐인 것이다. 주체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성향의 여성이 오히려 민족주의 이상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여성인물인 기생 연연이<sup>38)</sup>는 인화보다도 더 남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인이다.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성에게 순결을 지키는 여성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두 여성은 김동인이 추구하고자 한 대원군의 세계에서는 전혀 위험한 대상이 아니다. 즉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면모는 ‘고결함’의 이데올로기에 절대 복종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어, 서사 전개 과정에서 그녀들은 작가와 독자들에게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순결하고 도덕적이며 가부장제 질서를 잘 따르는 이 두 여성과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구현하고 있는 민비는 독자들에 의해 극단적으로 대비될 수밖에 없다. 즉 음탕한 성생활과 남성 사회에 도전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민비는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경계를 넘어선 여성으로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인물인 것이다. 즉 ‘고결함’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여성으로 그려진 민비는 이 시대의 추방의 대상인 것이다. 김동인의 이러한 이분법적 인물 배치의 극단적인 서사 전략은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 담론의 자연스러운 표출로 드러난 것이다. 즉 민족주의 질서에 위배되는 비정상성은 추방되어야 한다는 작가의 민족 담론이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고결한 남성을 통한 영웅주의의 실현은 김동인의 다른 역사소설인 『운현궁의 봄』, 『대수양』 등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 작가의 개인적인

38) 김동인, 『내 作品의 女主人公-세 型の 女人』, 『김동인 전집』 16권, 조선일보사, 1988, pp.423-424 참고.

성향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가 도덕적이고 정상적이라고 파악하는 김동인의 역사관에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이분법적 논리가 숨겨져 있다. 역사소설은 현재의 사회를 비추주는 거울이자 작가의 당대 사회에 대한 은유가 담겨 있기 마련이다. 『젊은 그들』에서 민비의 성적 문란함은 육체적인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신 구조의 문제로 이어져 당대 문화담론에서도 정상을 벗어난 것으로 규정되었다. 또 그것은 당대의 식민주의 담론인 ‘정신주의’의 영역으로 이어지면서 김동인이 드러낸 민족 담론은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즉 1920~30년대 문화담론은 낭비와 게으름을 비도덕으로 규정하고, ‘정신주의’를 강조하면서 ‘민도 개선’과 ‘문화정도의 차이’를 내세워 조선인의 정신 개조를 강요하였다. 당대의 담론에서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육체적 타락을 일삼는 인물은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인물로 위협의 대상이자 배제, 비판의 대상이었다. 김동인의 첫 역사소설인 『젊은 그들』이 함의하고 있는 민족 담론의 양상이 당대 조선의 문화 민족 담론과도 상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VI. 결론

김동인의 역사소설 『젊은 그들』은 이분법적 인물배치라는 서사 전략으로 공적 역사를 주변화하고, 작가의 주관과 판단에 의해 역사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가공하여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 인물의 대립적인 형상화와 역사의 선택과 배제의 논리를 통해 김동인의 민족 담론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동인은 『젊은 그들』에서 서술자의 시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인 구한말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의 감정과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현재의 자신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측면에서 작가는 보다 쉽게 구한말의 근대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한편으로 김동인의 역사소설의 출발은 ‘텍스트 외적 원천’에 의지해서 소설적 가공을 하지 않고 사실-효과를 얻고자 했던 이광수의 『단종애사』의 비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이라도 그것이 역사적 개연성이 없을 때에는 작가의 개성적 판단으로 소설적 가공을 해야만 역사소설로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원전을 현대어로 번역한 수준의 것은 역사소설이라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역사소설관을 피력하였다.

『젊은 그들』은 김동인의 이러한 ‘역사소설관’을 토대로 고증된 역사적 사실을 적절하게 가공하여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그는 역사적 인물이자 실질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대원군을 서사의 배경으로 처리하고, 그와 연관되는 가공의 인물들을 서사의 핵심에 배치하는 전략으로 공적 역사를 주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역사적 인물을 다룬 발단과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역사적 ‘사실성’이 부각되고, 가공적 인물이 중심이 된 전개와 위기, 절정 부분에서는 소설의 ‘흥미성’이 배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이 두 부분이 각각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이 서로 교호하고 얽히면서 역사적 사실성과 흥미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역사소설로서 소설적 상상력과 역사적 진실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가공의 인물’들은 ‘역사적 인물’인 대원군과는 수직적 관계로 형성되고, 민비와의 관계에서는 대립적으로 형성된다. 이 두 부류의 인물들이 각각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이지만 대립적인 이분법적 서사 구조가 서로 교차되어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공적 역사를 주변화시켜 독자들로 하여금 역사적 시대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역사적 개연성이 있는 사건임을 실감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하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서사 전략은 이전 작품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김동인의



민족 담론을 드러나게 하였다. 작가는 서사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멜로 드라마적 구조인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에 의거해 인물을 배치하였다. 서술자의 논평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인 초점화자를 이용해 작품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대원군을 ‘고결함’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 가공의 인물들은 대화를 통해 대원군의 도덕성과 위엄, 정치적 식견이 높음과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고결한 대원군을 추종하여 남성다움과 동지애를 발휘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김동인이 대원군을 중심으로 인물을 형상화하는 모습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덕목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고결함과 남성다움, 동지애 등은 민족주의 이상에서는 만인의 도덕으로 규정되는 것이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활용된 서사 전략은 김동인의 민족 담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원리로 작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원군과 대척점에 있는 민비의 형상화에서 작가는 고결함을 과는 정반대로 그리고 있다. 형상화의 신빙성을 위해 ‘초점화자’와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풍문’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민비는 문란하고 방탕한 성생활을 즐기며,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추구하는 여성으로 이미 조선 각지에 소문이 난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충신으로 인식된 민영환을 초점화자로 활용하여 ‘비도덕적’인 정치적 행각을 역사적 사실로서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민비의 형상화를 매우 극단적이고 여성의 성적 타락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작가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부르주아적 민족주의 사상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주의 이상에 맞는 여성은 순결하고 도덕적이며 남성의 전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즉 남성 사회를 위협하는 위협한 여성은 이 사회에서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고결함’을 상징하는 대원군과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민비의 대조적인

형상화는 기본적으로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고결함이 선택받는 민족주의 담론에서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여성은 추방의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인물 배치와 형상화의 서사 전략은 작가의 민족 담론의 자연스러운 표출이며, 당대의 부정적으로 형성된 여성담론에 대한 의식이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역사소설은 전사(前史)를 소재로 하여 당대의 담론과 현재의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 김동인의 『젊은 그들』에 드러난 역사소설관과 민족 담론은 일제의 문화정책의 일환이었던 당대 조선의 문화 담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드러났다. 문화정책은 낭비와 게으름을 ‘비도덕’으로 규정하고 정신주의를 강요하면서 조선인의 민도 개선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탐욕적이며 육체적 타락을 일삼는 인물은 정신적으로 ‘비정상’으로 규제하여, 사회를 교란하는 인물로서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김동인이 휘절로 간주한 첫 장편 역사소설인 『젊은 그들』의 이면에 담긴 민족 담론은 일제의 규율 정책이었던 당대의 문화 담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었다.

예술성과 계몽성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 김동인의 첫 역사소설 『젊은 그들』은 결국 김동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듯이 이후 예술성을 지양하고 역사를 소재로 한 민족적이고 계몽적인 작품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작품으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김동인의 첫 역사소설을 대상으로 그가 예술성을 강조하던 문학에서 계몽성 지향의 문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특징인 서사 전략과 민족 담론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반면에 그의 전시대의 역사소설을 관통하는 내적 논리와 그의 문학사에서 역사소설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창조』, 『삼천리』, 『삼천리 문학』, 『조광』  
김동인, 『김동인전집』, 1권~16권, 조선일보사, 1987.

### 2. 논문 및 단행본

강영주, 『김동인의 역사소설』, 『상명대 논문집』 17권, 1986, pp.113-130.  
공임순,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장르론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p.1-164.  
———,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김병길, 『역사, 역사소설, 역사소설론에 대한 네거티브』, 『현대문학의 연구』, 2004,  
pp.235-275.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2000.  
박종홍, 『일제강점기 역사소설의 세 양상』, 『우리말글』 제56집, 2012, pp.571-601.  
송백현, 『김동인 역사소설 <젊은 그들> 연구』, 『인문학연구』 26권 2호, 충남대 인문과  
학 연구소, 1999, pp.1-16.  
이승윤, 『근대 역사담론의 생산과 역사소설』, 소명출판, 2009.  
이재용, 『이광수와 김동인의 역사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1-154.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 사상사 연구』, 혜안, 2007.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5.  
제라르 즈네뜨,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조지 모스,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 2004.  
테사 모리스-스즈키, 김경원 역, 『우리 안의 과거』, 휴머니스트, 2006.

**Abstract**

The narrative strategy of the historical novel <The Youth>  
and national discussion

Kim, Kyung-Mi

This paper is the purpose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national discussion through the narrative strategy shown up in the history novel of Kim Dong-in's <The Youth>. It showed the national discussion which is inherent in <The Youth>, that is the first history novels, with the double narrative strategy.

If the historical fact was not connected, it deviated from the public history for the probability of the novel from the center. Besides the patterning of the person was maximized through the dichotomic narrative arrangement. As to this, this effect showed up as the national discussion as the logic of the choice and exclusion.

It uses the criticism of the descriptor and focusing technique. Besides it materialized into the person having the ideology which is noble. As well there is the male heroes, that is the virtual person, with the person where there is the justice and humanity. This is his national discussion.

Besides abnormal Minbi's Sexuality materializes into subject of exclusion. This oppositional arrangement of people is the device for showing the writer's national discussion.

Key Word : Kim Dong-in, <The Youth>, narrative strategy, the national discussion, implication, abnormal sexuality, the choice and exclusion, historic probability

김경미

소속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주소 :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글로벌 프라자(GP) 405호

전화번호 : (053) 950-7274 / 010-8598-7928

전자우편 : undertheneck@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

